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실태 분석 및 개선방안 연구

이 만 수
호서대학교 안전보건학과
(2007. 5. 31. 접수 / 2007. 8. 20. 채택)

A Study on the Analysis and the Improvement of the Safety and Health Consciousness between the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Man-Soo Lee
Department of Safety and Health Engineering, Hoseo University
(Received May 31, 2007 / Accepted August 20, 2007)

Abstract : This study is perform to improve the current point at issue of the non-regular employees, comparing the safety and health consciousness of between the regular employees and non-regular employees in manufacturing factory. The investigation is carried out using the statistical analysis. The study presents that most of the non-regular employees answer in the negative the current job satisfaction, work load, work risk, concern on the safety and health, educati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ystem than the regular employees. For the improvement of these problems, the government's safety and health policy should be changed and acknowledgement of the employer and employee on the safety and health should be improved.
Key Words : safety and health consciousness, regular and non-regular employee

1. 서 론

우리나라의 안전보건에 관한 역사는 선진국에 비해 상당히 짧다. 1981년 산업안전보건법이 제정된 이후로 우리나라의 산업재해 예방활동이나 안전보건관리수준은 체계적으로 관리되기 시작하였다. 산업재해 통계 산출 초기인 '60년대 재해율은 4~5%에 달하였으나 '70년대에는 4%대, '80년대에 들어서서 2~3%대, '90년대 초반에는 1%대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감소하여 왔으며, '95년에 0.99%를 달성하여 처음으로 1% 미만대에 진입 '98년에는 0.68%로 사상 최저수준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증가세로 반전되어 '06년 12월말 현재 0.77%를 기록 현재 선진국 수준에는 못 미치지만 통계적으로는 많은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산업안전보건법의 일부 조항이 1993년 제정된 「기업활동규제완화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해 적용이 배제되어 있어서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활동이 충실하게 운용되지 못하는 측면이 있으며, 지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관리 실태 또한 많은 문제점을 내재하고 있다.

여기서 비정규직 근로자라 함은 임금, 근로계약시간, 근로시간 등 중요 근로조건에 벗어나는 근로자로서 보통 파견근로, 단시간근로, 계약직, 도급, 위탁, 특수 고용계약직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총칭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06년도 8월 현재 임금근로자(1,500만명)의 35.5%인 545만명이며, '01년에 비해 182만명 증가로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1]. 주로 소규모사업장이나 취약분야에 종사하고 있으며 근로조건도 정규직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비정규직이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면서 2006년 11월 20일 2년여를 끌어온 비정규 입법이 통과되면서 조금의 실마리가 풀리는 듯 했으나 아직까지 비정규 노동시장에서는 명암이 엇갈리고 있다.

mal12728@yahoo.ac.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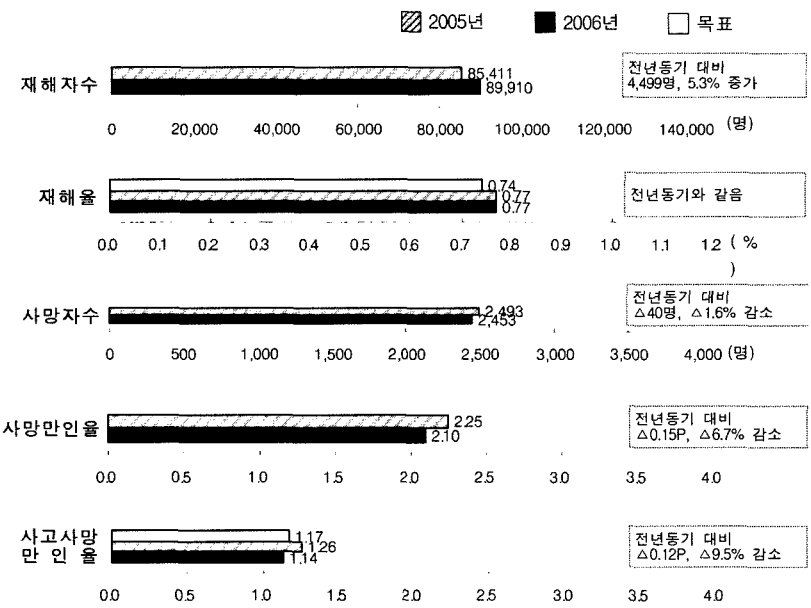

Fig. 1. Industrial accident in 2006.

2006년 12월말 현재 재해자수는 89,910명, 재해율은 0.77%로 전년 대비 재해자수는 4,499명(5.3%)이 증가하였고, 재해율은 전년도와 같다. 사망자수는 2,453명, 사망만인율은 2.10으로 전년 대비 사망자수는 40명(1.6%) 감소하였고, 사망만인율도 6.7% 감소하였으며, 사고성 사망만인율은 1.14로 전년 1.26에 비해 9.5% 감소하였다[2].

재해발생 원인을 사업장 규모별로 살펴보면 Table 1과 같이 30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가 80,833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89.9%, 사망자수는 1,990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81.1%를 차지했고, 50인 미만 사업장의 재해자수는 66,072명으로 전체 재해자의 73.5%, 사망자수는 1,401명으로 전체 사망자의 57.1%를 차지하였다.

업종별 재해자수는 제조업이 35,914명(40%)으로 가장 많고, 건설업이 17,955명(20%)으로 그 다음을 차지하였다.

이상에서 보듯이 산업재해의 대부분이 비정규직 근로자가 많이 분포되어 있는 300인 미만의 중소기업 특히, 50인 미만의 소규모 사업장에서 발생하고

Table 1. Casualties per factory size(2006)

구 분	2006. 12월말			전년동기			증 감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근로자수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재해자수 (사망자)	재해율 (사망만인율)
총 계	11,688,797	89,910 (2,453)	0.77 (2.10)	11,059,193	85,411 (2,493)	0.77 (2.25)	4,500 (-39)	0.00 (-6.67)
5인 미만	1,641,119	24,808 (479)	1.51 (2.92)	1,417,972	21,604 (471)	1.52 (3.32)	3,204 (8)	-0.66 (-12.05)
5인~49인	4,196,631	41,264 (922)	0.98 (2.20)	3,684,063	38,138 (918)	1.04 (2.49)	3,126 (4)	-5.77 (-11.65)
50인~99인	1,193,316	6,946 (241)	0.58 (2.02)	1,104,213	6,753 (229)	0.61 (2.07)	193 (12)	-4.92 (-2.42)
100인~299인	1,877,269	7,814 (347)	0.42 (1.85)	1,842,136	8,146 (396)	0.44 (2.15)	-331 (-48)	-4.55 (-13.95)
300인~999인	1,420,113	4,141 (297)	0.29 (2.09)	1,478,382	4,650 (293)	0.31 (1.98)	-509 (4)	-6.45 (5.56)
1,000인 이상	1,360,349	4,937 (167)	0.36 (1.23)	1,532,427	6,120 (186)	0.40 (1.21)	-1,183 (-19)	-10.00 (1.6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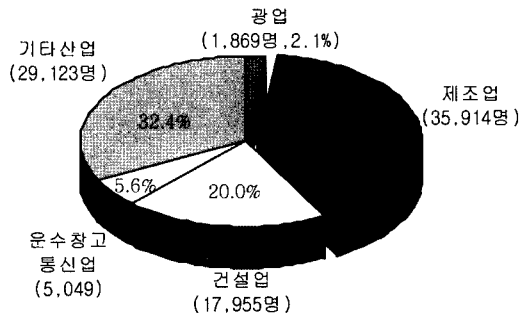

Fig. 2. Casualty distributions per industry.

있는 점에 착안하여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의식 실태와 산업재해 발생이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정규직 근로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의식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문제점과 개선방향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2. 연구대상 및 방법

2.1. 연구대상

천안, 아산지역 제조업체를 중심으로 10개 기업을 선정하여 각 업체당 사무실 근로자와 기타 관리업무(경비, 식당 등)의 근로자를 제외하고 생산 현장에서만 근무하는 정규직 근로자와 비정규직 근로자 10~30명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자료의 수집방법은 설문지를 이용하였으며 회수된 설문지는 총 140부였으며, 이 가운데 응답 누락 등 분석이 곤란한 설문 10부를 제외한 총 130명분(정규직: 73명, 비정규직: 67명)의 응답지를 최종 분석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2. Respondent's General survey(1)

Division		Regular Job (Number)	Ratio(%)	Non-Regular Job (Number)	Ratio(%)
연령	25세 이하	4	5.5	10	14.9
	26~35세	35	47.9	39	58.2
	36~40세	25	34.2	12	17.9
	41세 이상	9	12.3	6	9
경력	2년 이하	7	9.6	16	23.9
	2년~5년	18	24.7	35	52.2
	6년~10년	31	42.5	13	19.4
	11년 이상	17	23.3	3	4.5
작업관련 부상유무	있다	11	15.1	23	34.3
	없다	62	84.9	44	65.7
직업 만족도	매우 만족	8	11	2	3
	비교적 만족	21	28.8	10	14.9
	보통	32	43.8	8	11.9
	불만족	7	9.6	34	50.7
	극히 불만족	5	6.8	13	19.4
업무량	대단히 많다	5	6.8	20	29.9
	비교적 많다	19	26	25	37.3
	보통이다	38	52.1	18	26.9
	약간 적다	10	13.7	3	4.5
	아주 적다	1	1.4	0	0
위험도	대단히 많다	2	2.7	5	7.5
	비교적 많다	17	23.3	27	40.3
	보통이다	33	45.2	28	41.8
	약간 적다	15	20.5	4	6
	아주 적다	6	8.2	2	3

2.2. 연구방법

연구방법은 자기기입식 설문조사를 이용하였으며, 설문조사 구성은 1) 응답자 개인의 특성에 관한 질문이 11문항, 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8문항, 3)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7문항, 4) 기타 관련 3문항 등 총 29개의 질문으로 구성하였다.

3. 설문 분석결과

3.1. 조사대상 집단의 특성

「조사집단에 대한 연령별 분포」를 보면 26~35세가 정규직과 비정규직이 각각 47.9%, 58.2% 41세 이상은 12.3%, 9.0%로 제조업 근로자의 연령이 점차 젊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경력별」로는 5년 이하가 34.3%, 76.1%로 비정규직이 근속년수가 상대적으로 짧은 것으로 나타났다. 「작업관련 부상유무」에 대한 질문에서는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2배(15.1%, 34.3%) 높게 나타나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비정규직 근로자에게서 높게 발생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또한 「직업만족도」와 「업무량」 및 「위험도」에 대한 질문에서 비정규직이 정규직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어 비정규직 근로자의 작업환경이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열악하다는 것을 단편적으로 알 수 있다. 「근로시간」에 대해서는 두 집단 모두 '보통이다', '비교적 많다'는 대답이 많았다.

「산업재해 예방활동」 차원에서 정규직 집단은 '비교적 활동적이다' 이상의 긍정적인 답변이 63.0%이었으나, 비정규직 집단은 '그저 그렇다'의 부정적인 답변이 49.2%로 대조적으로 나타나 비정규직의 산업재해 예방활동 참여가 적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안전보건 활동의 장애가 되는 이유」로는 정규직 집단은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 및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참여부족'을 지적하였으며, 비정규직 집단은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이라는 답변이 53.7%로 높게 나타났다.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원인」은 두 집단 모두 '작업자 자신의 불안전한 행동' 및 '안전보호구 미착용'을 가장 큰 이유로 꼽고 있어 인적관리가 산재예방의 첩경임을 말해 주고 있다.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에 대한 질문에서는 '산업재해 예방 홍보'가 32.9%, 38.8%로 가장 높게 나타나 재해예방사업의 우선 순위를 홍보에 두어야 할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대상 개인의 특성에 대한 질문 결과 비정규직 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

Table 3. Respondent's General survey(2)

Division		Regular Job (Number)	Ratio(%)	Non-Regular Job (Number)	Ratio(%)
산업재해 예방활동	매우 활동적이다	12	16.4	8	11.9
	비교적 활동적이다	34	46.6	19	28.4
	그저 그렇다	8	11	24	35.8
	전혀 활동하지 않는다	6	8.2	9	13.4
안전보건 활동의 장애	사업주의 안전의식 부족	24	32.9	36	53.7
	안전관리자들의 열의부족	13	17.8	11	16.4
	근로자들의 안전보건참여부족	25	34.2	11	16.4
	모르겠다	11	15.1	9	13.4
산업재해 발생의 근본원인	불안전한 행동	28	38.4	18	26.9
	안전교육 미실시	10	13.7	8	11.9
	안전보호구 미착용	21	28.8	19	28.4
	작업장의 환경 및 시설미비	9	12.3	18	26.9
	기타	5	6.8	4	6
산업재해 감소를 위한 효과적인 방법	산업재해예방 홍보	24	32.9	26	38.8
	교육의 강화	17	23.3	14	20.9
	안전보건 기술지도	8	11	6	9
	강력한 법의 시행	21	28.8	20	29.9
	사전 안전성 심사	3	4.1	1	1.5

조건에서 불만이 있으며, 이로 인한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도가 적어 산업재해 발생빈도가 높음을 간접적으로 추론할 수 있었다.

3.2. 사업장 안전보건관리체제

「사업장내 전문 안전보건관리자의 수」에 대한 질문에서 '많이 모자란다' 이상의 답변이 53.9%, 74.6%로 나타나 전문안전보건관리 요원들의 적극적 손길을 많이 필요로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안전보건관계자의 업무 비중」이 50% 이하라는 답변이 두 집단 모두 60%를 상회하고 있어 안전보건관계자의 대부분이 타 업무를 겸직하고 있음을 알 수 있어 이에 대한 적극적인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산업재해와 안전보건관리의 제도적 체제」에 대한 질문에서 비정규직 집단의 65.7%가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이상의 답변이 나와 안전보건관리체제가 많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잘 되어있다'라는 답변은 비정규직 집단이 정규직 집단에 비해 33% 낮게 나타났다. 이는 안전보건 관리체제에 대한 인식이 비정규직 집단이 정규직 집단에 비해 부정적인 견해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안전시설 개선과 생산성 향상 및 부서간의 업무 협조체제」 등은 정규직 집단이 비정규직 집단에 비해 비교적 호응도가 높은 편이었다. 「사업주의 안전보건에 대한 관심」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집단 모두 '보통이다'라는 답변이 50%를 상회하였으나, 비정규직 집단에서 '낮다'라는 답변도 34.3%나 차지해 비정규직 집단에 대한 기업 경영층의 안전보건책임의식의 결여로 안전투자 기피 등 적극적인 재해예방 태도를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었다.

3.3. 사업장 안전보건교육

「사업장내 교육방법」에 대한 질문에서는 두 집단 모두 '실무위주의 교육'보다는 '이론위주의 교육'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비정규직 집단에서의 이론교육 응답비율이 55.2%를 높게 나타나 실무중심의 교육이 활발하게 이루어져 작업 중 일어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강의내용」에 대한 질문에서는 '보완이 요구된다'는 답변이 43.8%, 41.8%로 답하고 있어서 강의내용에 있어서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교육시간 및 교육운영」에 대한 질문에서는 '필요없다'가 42.5%, 41.8%로 답하고 있는 반면, '넉넉하다' 8.2%, 4.5%로 답하고 있어 안전예방을 위한 교육시간에 및 교육운영에 대해서도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어서 근로자들의 의식 전환이 이루어지

Table 4. The status for the prevention of industrial accidents

Division		Regular Job (Number)	Ratio(%)	Non-Regular Job (Number)	Ratio(%)
사업장내 전문 안전관리자의 수의 만족도	만족한다	5	6.8	2	3
	비교적 만족한다	12	16.4	4	6
	모자라는 편이다	15	20.5	10	14.9
	많이 모자란다	24	32.9	39	58.2
	잘 모르겠다	17	23.3	11	16.4
안전관계자 안전보건업무 비중	100%	8	11	5	7.5
	75%	16	21.9	7	10.4
	50%	36	49.3	21	31.3
	50% 미만	13	17.8	33	49.3
산업재해와 안전보건관리의 제도적체제	잘 되어있다	22	30.1	2	3
	개선되어야 한다	27	37	21	31.3
	많이 개선되어야 한다	13	17.8	24	35.8
	모르겠다	11	15.1	20	29.9
안전시설 개선과 생산성 향상의 관계	매우 도움을 준다	25	34.2	27	40.3
	약간 도움을 준다	31	42.5	21	31.3
	별 관계가 없다	10	13.7	11	16.4
	매우 떨어뜨린다	7	9.6	8	11.9

Table 5. The Status of safety and health education in the field

Division		Regular Job (Number)	Ratio(%)	Non-Regular Job (Number)	Ratio(%)
교육방법	실무위주	9	12.3	5	7.5
	이론교육	26	35.6	37	55.2
	이론과 실무중심	32	43.8	12	17.9
	모르겠다	6	8.2	9	13.4
강의내용	수준이 높았다	4	5.5	6	9
	보통수준	21	28.8	15	22.4
	보완이 요구된다	32	43.8	28	41.8
	그저 그렇다	16	21.9	18	26.9
교육시간 및 교육운영	충분하다	6	8.2	3	4.5
	적정하다	21	28.8	18	26.9
	부족하다	15	20.5	14	20.9
	필요없다	31	42.5	28	41.8
직무교육의 효용성	새로운 지식의 습득	9	12.3	11	16.4
	알고있던 내용의 재확인	22	30.1	17	25.4
	별로 도움이 안됨	26	35.6	31	46.3
	많은 도움이 되었음	16	21.9	8	11.9

지 않고서는 산업재해 예방 및 실질적인 안전보건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할 것으로 보인다. 「안전보건 관계자의 각종 산업안전보건교육, 세미나 등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최신정보를 입수하여 당해 사업장에 활용하고 있는가?」에 대한 질문에는 '그렇다'라는 답변이 '그렇지 않다'보다 10% 높게 나타나 최신정보에 대한 업그레이드는 잘 된다는 느낌을 받았다. 그러나 '관심없다'는 답변도 15.1%, 23.9%로 나타나 형식적인 면에 치우치지는 않는지 의문을 가지게 된다.

또한 「직무교육의 효용성」에 대한 질문에서는 '별로 도움이 되지 않는다'가 35.6%, 46.3%로 답하고 있어 직무교육을 통한 산업안전보건교육의 무용론을 지적하고 있다. 사업장의 안전보건교육은 대부분의 사업장에서 실시하고 있으나 대부분 형식적으로 시행하는 곳이 많으며, 중소 영세기업의 경우는 매우 미흡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3.4. 기타 질문

「작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포스터나 표어 등 홍보표지가 충분히 부착되어 있는가?」, 「모든 작업에 안전 표준화가 되어 있고 작업내용이 변경될 때마다 시기 적절하게 내용이 보완, 수정되고 있는가?」, 「게시판, 사보 또는 사내방송을 통하여 근로자들에게 안전보건 관리활동에 대한 내용이 제공되고 업데이트 되고 있는가?」라는 질문에는 두 집단 모두 '보통이다', '그렇다'는 답변이 50% 이상을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비정규직 집단이 모든 부분에서 정규직 집단보다 부정적인 답변 결과를 나타내고 있어 관리적인 측면에서의 관리가 정규직 집단에 비해 형식에 그친다는 느낌은 배제할 수 없었다.

4. 결론 및 토의

본 연구결과,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에 대한 다음과 같은 점들이 부각되었다.

첫째,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직업만족도와 업무량 및 업무의 위험도, 개인의 안전보건 관심도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나타내어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종합적인 지원이 부족하다 판단되며, 이에 대한 현실적인 관리방안 즉, 정규직 근로자에게 제공되는 안전보건 활동에 대한 지원, 안전보건 협의체 구성, 비정규직 근로자에 대한 사업주의 의식전환 등이 시급히 수립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둘째, 산업재해의 근본원인은 불안전한 행동에서 오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특히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작업관련 부상유무에서 34.3%로 2배 이상 높게 나타내고 있었다. 산업재해를 감소시키기 위해서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산업재해예방 홍보(38.8%)와 강력한 법의 시행(29.9%)로 나타나 이에 대한 제도적 관점에서의 대책이 요망된다.

셋째,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안전보건교육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나타내고 있었다. 실무중심 교육 보다는 이론중심 교육(55.2%)의 답변이 많았고, 강의내용 및 교육시간, 교육운영에 대한 답변에서는 부정적으로 나타나 교육의 질적 향상 및 형식적이 아닌 체계적이고 실효성 있는 특화된 안전보건 교육이 지속적으로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넷째, 산업재해의 예방활동에는 깊은 관심을 보이고 있으나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안전보건 예방활동 참여비율이 낮게 나타나 안전보건에 대한 문제점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산업재해와 안전보건관리 제도적 체제에 대해서 개선되어야 한다고 보는 입장이 67.1%로 답하고 있어 시급한 개선이 필요할 것이다.

이상에서 보듯이 비정규직 근로자의 안전보건의식 실태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전체적으로 낮게 평가되었다. 이로 인한 산업재해의 발생도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고, 산업재해는 각 개인의 불행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국가발전의 저해 요인이기에 이를 줄이기 위해서는 앞에서 제시한 대책과 같이 정부는 확고한 안전보건 의지를 담은 정책의 수립과 규제 방식의 개선, 안전보건관계법의 정비, 안전보건관련 기관의 통폐합, 즉 산업안전보건 법령이 산업현장에 친화적인 법령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법집행의 실효성 및 산업안전보건 환경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하여 체계적으로 기업 및 국민에게 자율안전의 기틀을 마련하여 주어야 하고 경영자는 지식 정보화 사회의 진전으로 인적자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높아지고, 근로자들의 권리 의식도 계속 증대될 것임을 인지하고 근로자가 업무에 안전성 확보를 통한 달성감, 성장성, 만족감 및 책임감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생산위주의 경영이 아닌 인간존중의 사명감을 가지고 안전인력 확보 및 지원, 안전시설의 확충, 안전보건 기술 등의 개발 등에 노력하여야 하며 근로자는 설문조사의 결과에도 재해발생 원인의 55.3%가 근로자 자신의 과실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듯이 안전은 그 누가 지켜주는 것이 아니고 내가 지켜야 한다는 자세로 안전작업 수행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안전보건관계자는 관리 업무에 체계적인 활동을 수행하기 위하여 안전보건관리 기본 운용방침과 계획을 수립하여 안전보건업무에 사명감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을 하는 것이 산업재해 예방에 필수적인 요건일 것이다.

끝으로 안전보건 의식고취는 노사는 물론 정부, 안전관련 기관 등의 노력이 수반되어야 하며, 이러한 모든 것이 하나가 될 때 무재해의 명랑한 산업사회가 조성될 것이다.

참고문헌

1) 노동부, "비정규직 현황", 2007.
2) 노동부, "2006년 산업재해 분석", 2007.
3) 대한산업공학회, "산업공학에서의 산업안전보건교육", 제3권, 제1호, pp. 22~25, 1996.
4) 대한산업보건협회, "안전보건의식 수준과 향상방안", 제163권, pp. 23~25, 2001.
5) 한국노동연구원, "비정규직 입법과 비정규직 해법", pp. 1~2, 2007.2.